

[한라산 '환상숲길'을 가다(3)]제1코스-②서귀포휴양림~남성대 제1대피소

해발 700m 한라산 숲길에 화전농업 흔적

입력 : 2009. 04.09. 00:00:00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남성대 제1대피소로 연결되는 한라산 환상숲길 구간인 도순천 상류 지류에서는 40여년 전까지 화전농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화전터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마을 향토지에도 도내 화전농업의 역사 기록 하천 등 물 인접지에서 메밀·조·감자 등 재배

1100도로변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시오름을 거쳐 남성대 제1대피소로 연결되는 12.5km의 한라산 '환상숲길' 탐사코스에서 확인된 화전터는 그 흔적이 제법 뚜렷하게 남아 있다.

법정사 전망대를 지나 하원마을까지 연결되는 도수로, 수 군데의 표고재배장에 이어 만날 수 있는 화전터는 탐사 전날 내린 비로 풍부한 수량을 이룬 도순천 상류 지점과 근접해 있다. 화전터는 계곡을 바로 벗어나 인위적으로 쌓은 100여m의 돌담길을 따라 널따랗게 이어졌다. 제주자치도산악연맹 숲길 조사팀이 수 차례의 예비탐사과정을 거쳐 찾아낸 '화전길'이다.



화전터 주변은 제법 숲의 형태를 이뤘지만 키작은 나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학술조사팀의 강만익 교사(세화고·지리)는 "키작은 나무들은 화전 이후 들어온 것들로, 불과 40여년 전에는 이 곳이 경작지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주도에서의 화전은 19세기를 전후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국영목장 지대에서 주로 행해진 것으로 보고된다. 금지하던 화전 경작을 허용한 것은 제주도 전체의 목장화로 인한 토지부족과 농업생산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목장세, 화전세 등의 세수를 확충하자는 정부 의도가 담겨 있다.

제주도와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가 펴낸 '한라산의 인문지리'에 의하면 1894년 공마제도가 폐지되면서 무상으로 경작지를 얻을 수 있는 화전이 제주도 전 중산간 지역으로 확대된다. 책은 "1899년 5월 전국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작성된 '제주군읍지' 중의 '제주지도'에는 목장의 상жат성 위쪽으로 여섯 군데에 화전동(火田洞)이 표시되어 있다. 아울러 지도 뒤의 읍지 본문에 화전세를 수세하던 기록이 있어 산장이 있던 곳에 화전촌이 형성돼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세금을 거두었다"고 적고 있다.

마을에서 펴낸 향토지에서도 화전의 역사를 찾을 수 있다.

서귀포시 하원향토지(1999년)에는 "하원리 인구동태를 호적중초를 찾아서 보면 가경 15년(1908년)에 화전민 인구표시로 15호에 41명의 화전민(화동인)이 너른도 등에 분포해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 동홍동지(2003년)에서도 화전의 기록이 있다. "동홍마을 미악산 서북쪽에 연저골이 있다. 1930년대까지 연저골에는 15여호가 화전생활을 하며 동네를 이뤄 살았다. 연저골 서북쪽 300m 지점에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 있다"고 적혀 있다.

도순동 박형금(76) 노인회장은 마을주민들이 개척했던 화전을 기억하고 있다. 박 회장은 "어릴 적 국영목장안에 좌○○씨의 화전터가 4·3 직전까지 있었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도순천 인근에도 개인소유의 화전 집터가 있었다"며 "주로 메밀, 조, 감자를 재배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제주도 화전은 일제가 산림보호 명목으로 금지정책을 펴면서 1930년대를 기점으로 점차 축소돼 간다. 다른지방보다 빨리 제주도 화전이 소멸하기 시작한 것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는 도민이 급격히 늘면서 굳이 화전이 아니어도 농촌경제활동이 가능한데다 '4·3' 때 산간마을의 소개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법정사와 항일투쟁]

3.1운동 전 전국 최대규모 항거...항일전쟁 성지로 복원공사 진행



▲의열사 경내 전경

'환상숲길'을 가로지르는 도순천은 서귀포지역의 역사유적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제주 불교사와 항일운동과 관련해 도순천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

고려후기 제주 지방의 대표적인 사찰로 전해지는 법화사를 비롯해 법정사, 존자암지가 모두 도순천 유역에 위치해 있다. 이 가운데 존자암은 영실 불래오름 기슭에 있는 고찰로서, 가장 고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성제를 지냈던 사찰로서 유명하다.

법정사는 '환상숲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 숲길을 걸을 때 법정사는 '테마코스'다. 법정사는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의 근거지였다. '법정사 항일투쟁'은 3·1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18년 10월 6일에 400여 명이 주민들이 중문주재소를 습격했던 사건을 말한다. 당시 주민들은 법정사의 주지였던 김연일의 지휘아래 호미와 낫 등을 들고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여 주재소 건물을 파괴했다. 당시 거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결국 경찰에 진압되었고, 주동자를 포함한 66명이 검거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법정사 항일투쟁은 3·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전국 최대 규모의 단일 투쟁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최초·최대 거사라는 점에서 항일 운동사의 시발점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은 건물흔적과 주춧돌이 남아 있으며 서귀포시가 이 곳을 항일항쟁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법정사 주변에 있는 '의열사'는 항일투쟁 애국선열 66위를 추모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의열사'는 도수로와 연결돼 있다. '환상숲길'은 바로 이 '의열사' 경내를 지나 도수로와 숲길로 향한다.

/강시영기자

[전문가 리포트] 환상 숲길에서 만나 화전 이야기

숲 태워 농지 활용...방화선 돌담 구축 19세기 전후 국영목장 중심 '화전벨트'



화전(火田)은 숲을 태워 만든 농경지를 말한다. 이러한 화전은 장소 선정, 불 놓기, 파종, 휴경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진다. 물을 얻을 수 있는 하천변이 화전을 만드는데 선호되었으며, 불을 놓은 다음 소, 따비, 갯이 등을 이용하여 개간했다. 화전에서의 경작기간은 1~3년 정도로 짧고, 땅의 힘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휴경기간은 6~8년 정도로 길었다. 따라서 여러 곳에 화전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해안이나 중산간 마을에 살면서 필요에 따라 화전을 왕래하기도 했다.

제주도 화전민은 대체로 의식주를 화전에 의존하는 순화전민, 화전과 숙전(熟田)을 동시에 경작하는 겸화전민, 마을단위 집단거주 화전민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화전을 개척한 주체는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도 밖에서 들어온 이주민들도 있었다.

제주도 화전은 19세기를 전후하여 국영 목장지대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운영이 부실했던 목장을 방치하기보다는 화전경작을 허용해 화전세(火田稅)를 받자는 정부정책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점차 화전개척이 증가하면서 해발 400~600m 일대에는 허리띠 모양의 화전벨트가 탄생했다. 이것은 1899년에 제작된 <제주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지도에 나타난 9개의 화전동(火田洞)을 연결하면 화전벨트가 된다. 중앙에서 파견된 봉세관들이 무리하게 화전세를 징수하면서 화전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1898년에는 화전민들이 중심이 된 방성칠(房星七) 난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귀포시 도순동 마을회관에 보관 중인 화전세 영수증 자료(領收 一金 拾陸圓柒拾貳錢貳里也 右는 道順里八所場火稅領收 暉 明治四十三年十二月十五日 納入○元○ 領收員姜弼鎬)는 1910년 이 마을(도순리)에 거주했던 ○원○가 세금을 걷는 영수원 강필호에게 화전세로 16원72전2리를 납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19년에 조사된 제주도 화전 총면적은 2,004단보(1단보 : 300평)였으며, 1926년 화전민은 1,127호에 4,240인이었다. 이후 산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930년대에 화전이 금지되었다.

법정사에서 어점이악을 연결하는 해발 500~700m 지대의 '한라산 환상 숲길'에서도 화전터가 남아있다. 이곳은 한라산 남사면으로 도순천 지류를 끼고 있으며 일사량이 많아 화전경작에 유리한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화전경계선용 또는 삼림지를 태우기 전에 만든 방화선용 돌담이 100여m 남아 있다. 이곳에서 화전을 개척한 사람들은 1800년 후반부터 1920년대를 살았던 서귀포시 하원동과 도순동 주민들이다. 현재 화전이 방치되면서 이곳은 다시 삼림지로 되었다.

<강만익 세화고 지리교사>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